

精油5社工場見學記

장마철 답지 않게 화창한 7월 9일 아침. 학창 시절 산업견학길에 오를 때보다 더 진한 흥분과 기대가 온몸을 휘감는다.

정유업계 企劃實務者로 구성된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단 견학계획이 잉태의 씨를 내린 지 벌써 10달-. 교보빌딩옆에 주차한 리무진버스에 오르면서 이제 드디어 순산의 순간을 실감한다. 3박 4일을 함께 할 일행들이 서로 반가운 인사말과 악수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덧 버스는 성산대교를 지나 경인고속도로로 힘차게 접어든다.

知彼知己 百戰百勝

본시 兵家の 금언은 오늘 날 경쟁 사회 원리로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고 있다. (혹자는 사회의 共生共存에 입각한 道德律을 가미해서 현대판 知彼知己 百戰不敗를 역설하기도 하지만).

한 시장을 놓고 굴지의 대기업이 5개씩이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종이면서도, 共存共榮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精油産業. 여기에 몸담고서 기업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설계하는 우리 企劃實務者들. 우리에게서 百戰百勝을 위한건 百戰不敗를 위한건 知彼知己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좌우

명의 하나일 것이다.

精油業界 企劃課長 회의는 이렇게 서로를 더 알고파서 마련된 것이다. 몇년전부터 한달에 한번씩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사교 모임이다. 또한 상대방 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던지지 꺼내거나 무심코 오가는 대화속에서 뭔가 쓸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知彼를 위한 직무의식이 번쩍이기도 하는 모임이다. 여기에서 이번 정유공장 단체견학계획이 제기되고 또 만장일치로 OK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리라. 百聞이 不如一見이라지 않는가.

첫 방문지인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둘러볼수록 마치 鶴이나 선비를 대하는 듯한 고고한 기품을 느낀다.

크지도 작지도 앎으면서 콤팩트하게 잘 배열된 각종 시설들.

잘 가꾸어진 造景과 구릉위에 자리한 단아한 모습의 社宅團地.

쾌청한 날이면 멀리 북녘땅이 보인다. 接敵地域에 우뚝 버티고 있는 자세.

정부의 脫石油電源開發政策의 여파가 역력함에도 의연히 평음과 연기를 내뿜고 있는 栗島화력발전소.

이들의 인상이 어우러져서 오는 느낌일게다.

전화 두어통만에 버스를 혈값에 대절하는 수완을 보인 京仁의 金容來 과장이 또 한번 일행을 놀라게 한다. 공장측에 요청하여 막 떠나려는 버스에 기념품과 캔맥주박스를 한아름 갖고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하고 모두들 얼굴이 환해진다. 앞으로 방문할 네 공장에서 京仁공장에 지기 싫어서라도 接待경쟁이 벌어질 것임

朴 永 德
(油公 石油事業企劃部 企劃課長)

을 企劃쟁이들답게 재빨리 간파한 것이다.

둘째 날. 몇분의 간담 돌산다리 遠征談과 여수밀수꾼 일화를 듣다보니 벌써 버스는 湖南精油공장 본관앞에 멈춘다.

웨이드 專務님의 위트넘친 자칭 콩글리쉬 환영사.

제 1 상압증류장치를 과감히 개조한 비스브레이커(Visbreaker).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집중 처리하는 대규모의 LPG 회수시설.

8월의 시운전을 앞두고 우뚝 솟은 나프타분해 LPG 제조공정의 웅자.

산을 관통하는 원유송유관전용 터널을 뚫은 기발함.

지난해 무려 51종이나 되는, 이름도 생소한 원유를 공장운전의 어려움은 문제도 아니라는 식으로 과감히 들여왔다는, 자랑쉬인 공장엔지니어의 불평.

2차석유파동의 와중에서도 대규모 증설을 추진했던 前歷에서도 그렇지만, 역시 湖油는 배짱두둑한 奇人の 품포가 물씬한 巨人이다.

종일 비가 계속 된 세째 날, 내가 몸담은 油公의 울산공장은 언제 보아도 자랑스럽다. 듬직한 만형이며, 자상한 선배이다. 精油業界의 先導企業(Leading Company)답게 정유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비전을 공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공정의 에너지절약시설 현대화, 정문어귀 우뚝 솟은 기술지원연구소, 최신 연속추매재생기술의 신규 芳香族제조시설, 6만톤의 선박접안이 가능한 수퍼·돌핀.

이들 지난해 완성된 신규설비와 더

6 한시장을 놓고 굴지의 대기업이 5개씩이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이면서도 共存共榮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精油産業, 여기에 몸담고서 기업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은 설계하는 企劃實務者 들은 知彼知己가 가장 먼저 요구되는 과제이다

불어 진행중인 LPG 저장지하기지와 코울·센터(Coal Center) 건설사업에서, 국제일류의 綜合에너지·綜合化學企業을 지향하는 油公의 힘찬 맥박이 고동친다. 또한 공정자동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을 완벽한 主調整室에서 油公이야말로, FA(工場自動化)의 선구자임이 모두에게 실감되었으리라.

雙龍精油의 온산공장은 잘 생긴 美男青年, 작은 거인 다윗의 모습이다. 최신에 공장답게 깨끗하다 못해 藝術的 造形美가 눈부시다.

석유정제와 윤활기유제조의 복잡한 장치설비가 기능적으로 조화된 공장 배치.

오리떼가 한가로이 노니는 폐수정화연못.

그리고 全工程施設을 실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전시한 브리핑 룸에서 다시 한번 雙龍공장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된다.

마지막 날, 활짝 갠 토요일. 極東石油의 부산공장은 비록 규모가 작고 시설배치도 다소 어수선한 편이지만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이 물씬하다. 상압정제시설부터 아스팔트, 용제, 윤활기유 및 그리스 제조설비에 이르기까지 갖출 것은 다 갖춘데다가, 배

煙가스열을 회수이용하는 에너지절감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사실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이러한 기술능력과 직원들 안면마다 뚜렷한 자신감이 지금 건설중인 대산공장에 접할될 때, 極東石油은 또 하나의 거인으로 탈바꿈하리라.

귀경 버스속에서 첫날의 설레임이 知彼의 가슴뿌듯함으로 바뀌고, 3박 4일간 장장 1,500킬로 강행군의 피로감이 잔잔히 밀려온다.

京仁공장 소개영화가 시작되며 서서히 클로즈·업되어 다가오는 聖書의 영상.

湖油 클럽하우스에서 본 바다 건너 광양제철소 골리앗·크레인의 어렵 뜻한 모습.

부슬비속에 잠긴 섬진강과 송정 앞 바다의 평화로운 경치.

지난 며칠의 修學旅行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값진 추억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見學기간 중 극진한 환대와 친절한 안내를 아끼지 않은 各社 공장여러분들께 우리 일행 19명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고마움을 드린다. 또한 모든 곳을 일을 도맡아 이번 見學여행의 순산을 가능케 한 石油協會 見學회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